



한울림 교회

방송설교

KRB(FM87.7)
토 6:30pm / 주일 6:30AM

단비 TV
본방-토 9PM/재방 월 11AM

Youtube - 한울림TV

www.hpcny.org
hulpcny@gmail.com

섬기는 사람들

전도사

정주애, 차유미

목사

김원재, 양명철

대림절 셋째 주일

오전 11시

교회소식

찬양*

기도인도

봉헌*

말씀교독

특별찬양

말씀선포

찬양과결단*

축도*

예배 인도: 김원재목사

인도자

다같이

인도자

다같이

다같이

사마임찬양대

김원재

다같이

설교자

곧 오소서 임마누엘 (찬 104)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찬 633)

사도행전 10:1-23a

“위대하신 여호와”

“함께 가라”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찬 484)

* 일어서서

(서기 힘든 분들은 앞쪽으로 와서 앉으시거나

그 자리에서 앉아 계셔도 됩니다)

1.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대면,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2. 오늘은 대림절(대강절)셋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3. 오늘 예배 후 공천위원회가 있습니다.
4. 다음 주일(12/20) 오후 1시 민영미 선교사 장례예식이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유해와 유족들과 함께 합니다.
5. 12월 27일 예산안과 장로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6. 2021년 큐티책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개월 혹은 1년 단위로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큐티책 1년은 \$54, 6개월은 \$27, 한달은 \$5 입니다. 2021년 큐티사역팀장으로 박순정 자매가 섬기게 되었습니다.
7. 2021년 사역부서 신청을 홈페이지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8. 생협 물품이 도착했습니다. 지난 번에 생협 물품을 신청하신 분들은 오늘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담당- 임영흔, 최옥경)
9. Covid-19 감염으로 인해 계속해서 주일예배를 현장예배와 Youtube를 통한 영상예배를 병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예배당 입장 인원 제한이 있는 관계로 연락되신 분들만 주일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문의-양명철 718-772-5290)
10. 새벽기도회는 오전 5시 30분(월~토)에 Zoom을 통하여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단 토요일은 현장기도회와 영상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Zoom ID: 3213210608 / PW: 0608
11. 우리 교회 설교가 KRB 라디오방송(FM 87.7 토 6:30PM, 주일6:30AM) 단비 기독교TV(토 9:00PM, 월 11:00AM), youtube의 한울림TV(설교와 칼럼)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전도의 수단으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전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건축헌금참여 111명 건축헌금누계 \$1,432,526

2021년을 준비하며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내일 (12/14)부터 뉴욕시 식당 실내 영업을 다시 중지되었습니다. 백신이 FDA의 긴급 승인을 받았고,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의 코로나 감염을 치료한 약이 효과적인 것을 볼 때 치료제도 이미 확보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백신과 치료제가 신속히 보급되기 시작하면 코로나로 무너진 일상은 회복되리라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일상 뿐 아니라 예배 모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안전수칙에 잘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입구의 체온 확인, 손소독제 사용,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확보를 위한 자리 배치, 현장예배 출석자 확인을 통한 현장예배 참석자 명단 확보 등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예배를 마친 후 교제 시에도 악수와 신체적 접촉은 절대 금물이고, 대화 시에도 절대 마스크를 벗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회적으로 코로나 확산이 심상치 않은 요즘 조심 또 조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이런지라, 2020년은 어떻게 지나는지도 모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2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2020년의 끝자락에서 마무리를 잘 함과 동시에 2021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교회적으로 볼 때, 2021년은 새 예배당 입당을 하게 됩니다. 현재 예배당 건축은 도로 확장공사를 제외하고 90% 가까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배당 건축이 완료되고, 입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준비된 채 새예배당에 들어가느냐입니다. 성도들의 개인적인 삶이 복구됨과 동시에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도 온전히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2020년은 가고, 2021년을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준비해서 2021년을 제대로 맞이해야 합니다. 사역부서 신청, 큐티책 신청을 비롯해서 2021년을 잘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